



濁流清論

제73호 2023년 8월 1일

발행인: 이 재 호 / 편집: 편집위원회

< 알려 드립니다 >

◇ 수시로 원고 접수합니다

탁류청론은 아주대학교 교수님들의 의견을 나누는 자리입니다.

교수님들의 원고는 교수회 공식 이메일(ajoufaculty@ajou.ac.kr)로 보내주십시오.

탁류청론에서 다루었으면 하는 주제가 있으면 위의 메일 주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불어 푸른 솔밭에서

재정 관련 환경변화를 고려한 몇 가지 제언

아주대학교 교수회 의장 이 재 호

목 차

더불어 푸른 솔밭에서	1
- 재정 관련 환경변화를 고려한 몇 가지 제언	
특집	5
- 새로운 50년을 위하여 산학협력 선도대학으로 탈바꿈하는 캠퍼스 혁신 파크 사업	
소통과 담론	8
-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 추진에 대한 소견	
교수들의 건강칼럼	10
-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저서 소개란	12
- 누가 누구를 대표할 것인가 (저자 문우진)	
- ADHD 우리 아이 어떻게 키워야 할까 (저자 신윤미)	
소식	14
- 교수회 제 129차 월례 대의원 회 개최	
- 7월 확대운영위원회 개최	

6월 26일 4시 반에 연암관 104호에 갔습니다. 대학혁신지원사업 관련 제 2차 교육혁신전략안 설명회 때문이었습니다. 이 설명회는 교수회의 요청에 따라 대학본부에서 급히 준비한 행사였습니다. 종강 이후지만 온·오프라인으로 80여분의 교수님들이 참석해서 본부의 설명을 듣고 여러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설명회 자체는 충실했고 의미도 있는 자리였지만 참석한 분들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우리 대학의 미래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모집단위 광역화, 그에 따른 기초 및 교양과정 개편, 행정체계 변화 및 교원 소속/시수제도 개편에 학생정원 관리의 변화 등을 포함한 많은 변화들이 너무나 짧은 기간에 대부분의 교수님들이 제대로 인지하지 못 한 채, 그것도 재정지원을 갖고 위협하는 '교육부의 요구'라는 외부요인에 의해, 전격적으로 수용되는 것에 대한 당혹감과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교육부의 이런 행태는 옳지 않습니다. 대학재정지원사업의 첫 번째 키워드는 "자율성 확대"입니다.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대학의 발전과 혁신을 모색하는데 정부의 재정지원을 활용하라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교육

부는 각 대학의 “자율성”을 무시하고 ‘예시’라는 이름으로 상기한 몇몇 정책을 제시하고 대학들이 이를 그대로 수용하도록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미 선정된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연차계획에 불과한 올해 계획서 평가항목을 대폭 수정해서 상기한 몇몇 정책에 대한 순응도를 최우선으로 평가하여 지원액을 크게 차등지급하겠다고 합니다. 2025년 입시부터 모집단위 광역화를 시행하고자 이미 발표된 전형계획을 수정할 수 있다고 공표함으로써 스스로 세운 원칙에 예외를 두었다고도 합니다. 교육부가 지향하는 “학과간 벽 허물기”라는 방향성 자체는 동의를 받을 수 있겠으나 진행과정의 조급함과 강제성은 많은 부작용을 초래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 생존전략의 하나로 정부 재정지원 사업에 적극적으로 의지해 온 우리 대학으로서는 연간 50~80억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재정지원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결국, 교육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계획서를 제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외부환경이 급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변화를 감안해서 우리 자신의 발전전략을 선제적으로 준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야 이번 대학혁신지원사업의 경우와 같은 당혹감과 내부 논의 부족 상황을 다시 겪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학본부에서 이미 고민하고 준비하고 있겠지만 이를 가속화 한다는 의미에서 특히 재정과 관련성이 높은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제언들은 대학평의위원회의 2023년 추경예산 자문 과정에서 대학본부와 법인에 전달된 바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대학의 평생·직업 교육 인프라를 정비하고 투자할 것을 제안합니다. 작년 연말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로써 교육세 세입 중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 지원금을 뺀 나머지 액수의 절반을 고등교육(즉 대학·전문대학 교육) 및 평생교육에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올해 예산 기준 1조 5000억원의 순증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고등교육 예산이 전년 대비 13.4%나 늘어난 13.51조원이 되었고, 평생·직업교육 예산은 무려 27.4%가 늘어난 1.44조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늘어난 고등교육 예산의 대부분은 다들 아시는 것처럼 국립대학과 지역 거점대학으로 집중 지원됩니다. 대부분 우리 몫이 아닙니다. 평생·직업교육 예산은 그 정도로 편중지원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게다가 납세자들의 이해를 얻기 위해서라도 평생·직업교육 예산은 지금보다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큼니다. 하지만 우리 대학의 평생·직업교육 인프라는 좋은 상태가 아닙니다. 우리 대학 비전전략에는 평생교육에 대한 강조가 살아 있지만, 우리 대학 평생교육원인 ‘글로벌미래교육원’의 수익은 지난 5년간 반토막이 났습니다. 강의실 부족 등 하드웨어 문제와 상대적인 경쟁력 약화 등 소프트웨어 문제가 겹쳐 있다고 합니다. 지금 재정비하고 투자해야 향후 증가될 평생·직업교육 관련 재원을 유치할 수 있고 이를 이용해 우리 대학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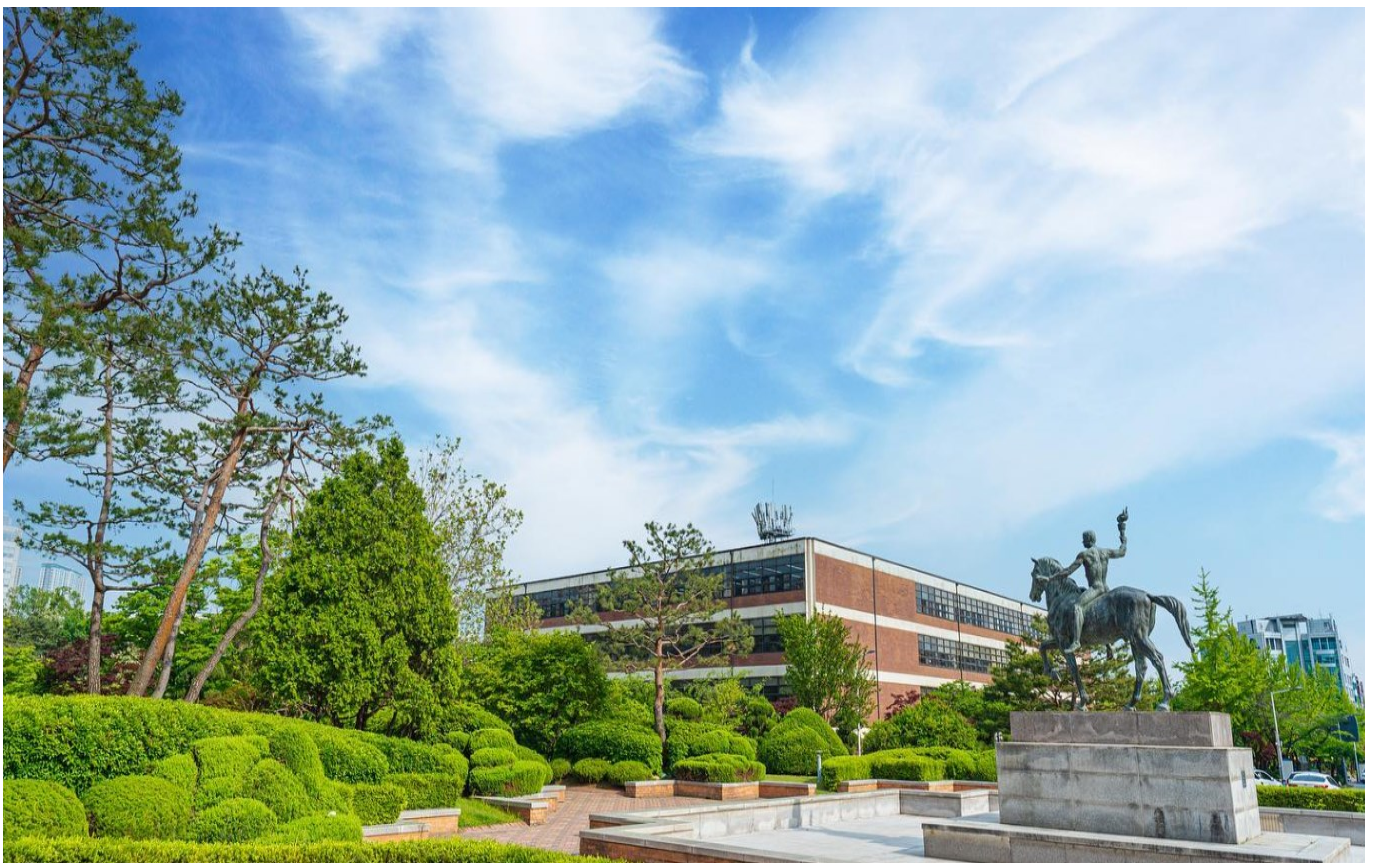
주요 발전 전략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경기도와의 연계강화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년 반 뒤인 2025년이 되면 RISE (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 체제가 수도권을 포함, 전국에 걸쳐 시행됩니다. RISE는 이제까지 교육부가 집행하던 대학 재정지원예산의 반 정도인 2조원을 17개 시도 별로 집행하기 위한 체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학이 지원을 받은 바 있는 LINC, LiFE 사업등이 그 범주에 들어갑니다. 이를 위해 경기도에 관련 행정조직이 만들어지고 별도로 (마치 한국연구재단처럼) RISE 센터가 만들어져서 지원안 작성, 선정, 집행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지방정부는 이런 기능을 수행해본 경험이 없기에 많은 조언과 도움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효율적이고 공정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1차적인 목표가 될 수 있겠지만 한 발 더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경기도가 단순히 국가예산을 배정하는 기능을 수행하는데 그칠 것이 아니라 경기도 내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투자하도록 설득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RISE 시범사업에 선정된 경상북도는 놀랍게도 1조 5천억을 10년에 걸쳐 투입하겠다고 합니다. 대구시도 3000억을 투입한다고 하고요.

셋째로, 법인에 대한 요청입니다. 정부재정이 국립대학과 지역거점대학에 편중 지원되고 있는 이때, 우리 같은 수도권 대학이 나름의 생존전략, 발전전략을 마련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자칫 후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선제적인 투자가 필요합니다. 투자재원 마련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일환으로 “법정부담금을 전액 부담해 주십시오.” 법정부담금은 사학연금, 국민연금, 의료보험, 고용보험, 퇴직금 등에서 사용자인 법인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돈입니다. 100% 법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미부담액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부담할 수 있는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우리 대학법인인 “학교법인 대우학원”의 법정부담금 부담률은 2022년 결산 기준 81.4%(99.9억/122.8억)입니다. 이는 2021년 기준 수도권 65개 사립대학의 평균부담율인 55.2%를 크게 웃도는 수치입니다. 병원 관련 법정부담금을 실제로는 전액 병원에서 부담하고 있지만 본교의 법정부담금 부담률도 2022년 기준 68.0%로 평균을 넉넉히 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지금 선제적인 투자가 필요한 때이기에 법정부담금 100% 부담을 요청합니다. 다행히 코로나 상황을 벗어나면서 법인의 수익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굵직굵직한 수입을 합산했을 때, 2020년 150억 정도, 2021년 200억 정도, 2022년 250억 정도의 수입이 발생했습니다. 상당 부분 의료원과 연계된 법인수익사업의 확장에 기인합니다. 법인은 법정부담금을 100% 부담할 능력이 있어 보입니다.

나중에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지금의 법정부담금 부담률에 만족하고 법인 수익사업을 확장하는데 역량을 집중하는 전략도 타당성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부담률 100%를 위해 추가로 부담하게 될 연간 22억+(2022학년도 기준)라는 금액은 수익사업 투자금 관점에서는 사활적인 액수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에 반해 향후 법정부담금 부담률 100%를 지속한다면 법인의 내외부 위상 증가, 여러 평가지표에의 도움을 기대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 등록금동결의 장기화로 인해 학교발전과 학생교육 향상을 위한 재원 마련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의 발전역량을 보존 내지 확장하는데 요긴하게 쓰일 것입니다.

지금만은 변화의 시기입니다. 대학본부도, 법인도 변화의 흐름을 읽고 최선을 다해 대비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기에 교수회와 대학평의원회라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제언을 드립니다. 우리 대학 구성원들의 고민과 논의가 다양한 경로로 모이고 숙성할 때 우리 대학의 발전을 위한 원동력이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특집

새로운 50년을 위하여 산학협력 선도대학으로 탈바꿈하는 캠퍼스 혁신 파크 사업

산학협력단장 김 상 인



최근 저명한 인사가 '인쇄술 이후 최대의 지적 혁명'이라고 일컬을 정도로 분야를 막론한 많은 지식인들의 최대 관심사인 초거대 생성형 AI에게 '대학의 사회적 기능이 무엇인가?'라고 질문했더니, '교육을 통한 인재양성', '연구활동을 통한 지식 창출', 그리고 '지역사회 발전'이라는 답을 얻었다. 초거대 생성형 AI의 정확성이나 활용성에 대한 논의는 뒤로하고, 수많은 문헌 정보를 학습시킨 초거대 생성형 AI가 이런 답을 내놓는다는 것은, 대학의 사회적 역할이 전통적인 교육과 연구에 국한되지 않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는 사회적 통념이 존재한다는 것을 반증한다. 대학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 대학이 보유한 원천기술을 기업에 이전하거나 기술 기반 창업을 통한 가치 창출이라는 것에는 누구나 동의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대학의

교육과 연구에 있어서 산학협력을 강화할 것을 정부와 사회로부터 요구받고 있으며, 더 나아가 교육부의 대표적인 대학 지원 사업인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LINC)'에서는 대학이 더욱 적극적으로 산학협력을 강화하고 직접 투자에 참여하는 '기업가형 대학'으로 거듭날 것을 요구한다. 따라서, 산학협력을 통한 기술사업화는 이제 거부할 수 없는 대학의 주요 기능이며, 대학의 우수성과 경쟁력을 재는 척도이다.

대학이 지역사회 발전에 얼마나 크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예로서 '말뚝의 기적'을 들 수 있다. 말뚝은 스웨덴 남쪽 발틱해 연안의 항구도시로 유럽 최대의 코쿰스(Kockums) 조선소가 위치하여 1970~1980년대에 조선 산업으로 번영했던 도시이다. 그러나, 한국과 일본의 조선업 경쟁에 밀려 말뚝의 조선업은 쇠퇴하기 시작했고, 코쿰스를 비롯한 대부분의 조선소는 도산하게 된다. 세계 최대 규모의 코쿰스 크레인이 해체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단돈 1달러에 현대중공업에 팔리고, 2002년 9월 25일 크레인의 마지막 부분이 해체되어 운송선에 실려 떠나는 모습을 보며 시민들이 한없이 아쉬워하며 눈물을 흘리는 장면을 스웨덴 국영방송이 장송곡과 함께 '말뚝의 눈물'이라는 제목으로 방영하였다.

망가진 말뚝의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스웨덴 정부와 말뚝시는 버려진 조선소 부지에 IT와 기초공학, 미디어, 디자인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하는 기술사회대인 말뚝대를 설립하고, 말뚝대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스타트업 육성 허브인 미디어볼루션시티도 설립하여 대학 구성원의 창업을 활성화함으로써 IT와 디자인을 중심으로 하는 첨단산업도시로 육성하는 계획을 세우고 투자를 아끼지 않았

다. 그 결과, 20여 년이 지난 후 말되시는 하루 평균 7개의 기업이 설립되고, 스타트업을 통하여 6만여 개의 일자리가 창출됐으며, 이케아 본사를 비롯한 EU 주요 기업의 본사들이 말되로 잇달아 이전하는 등 완벽히 경제가 부활하였다. 이를 '말뫼의 눈물'을 딛고 일어난 '말뫼의 기적'이라 부른다.

우리 아주대학교는 실사구시를 건학이념으로 삼을 정도로 학문의 실용성을 중시하는 학풍을 이어오고 있으며, 개교 50주년을 맞아 '가치 창출과 혁신으로 미래를 바꾸는 대학'이라는 비전 5.0을 선포한 바 있다. 비전 5.0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튼튼한 교육과 연구를 토대로 더욱 적극적으로 산학협력과 기술사업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우리 대학은 금년 초에 국토부, 교육부, 중기부 3개 정부 부처가 공동으로 지원하는 '캠퍼스 혁신 파크' 사업에 도전했다.

'캠퍼스 혁신 파크' 사업은 대학 캠퍼스 내에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 및 조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산업단지 조성의 마중물로서 LH가 10층 규모의 1개 건물('산학연혁신 허브동' 연면적 20,000㎡ 내외)을 건축하고 일정 기간(약 30년) 동안 운영 및 관리를 하는 것이 주요 사업 내용이다. 이를 위해서 대학은 최소 10,000㎡의 이상의 사업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해야 하며, LH의 운영·관리 기간이 종료되면 '산학연혁신 허브동'은 학교에 귀속된다. '산학연혁신 허브동'에 입주한 스타트업을 비롯한 기업들과의 산학협력을 통하여 대학은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캠퍼스 혁신 파크' 사업의 기대효과이다. 또한, 대학은 '산학연혁신 허브동' 외에도 대학 자체 자원 또는 민간 투자 유치를 통하여 지정된 도시첨단산업단지 내에 추가적으로 건물을 짓고 기업에 임대할 수 있다. 즉, 대학은 단기적으로 건물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산학협력의 파트너인 우수한 기업들을 캠퍼스 내에 유치함으로써 산학공동연구와 기술사업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학 자체의 첨단산업단지를 보유하게 되는 것이며, 이는 대학의 산학협력 및 기술사업화에 있어서 차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게 된다는 측면에서 금액으로 환산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효과가 기대된다.

우리 아주대는 이미 탁월한 교통환경과 정주여건을 보유하고 있기에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캠퍼스 내에 조성할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이러한 장점을 바탕으로, 경기도 남부의 산업 여건과 경기도와 수원시 등 지자체의 지역 산업 발전 전략을 고려하여 ICT, 반도체, 바이오 기술을 융합한 디지털·바이오 융복합 기술을 중심으로 캠퍼스 혁신 파크를 조성할 계획을 세웠다. 판교에 형성된 ICT 테크노밸리, 광고의 바이오 테크노밸리, 그리고 동탄의 반도체 테크노밸리를 잇는 디지털·바이오 융복합 산업의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는 캠퍼스 혁신 파크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캠퍼스 혁신 파크의 성공은 단지 기업들을 대학의 캠퍼스 내에 입주하게 하는 것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대학이 기업들의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한 기술개발을 도와줄 수 있는 기술력과 스타트업의 육성 및 기업의 성장을 도울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가능하다. 우리 아주대는 단일 캠퍼스 내에 공대, 정보통신대, 소프트웨어융합대, 자연대, 경영대, 법전원, 약대, 의대가 모두 모여 있으며, ICT, 반도체, 바이오 분야의 독립적인 연구 역량이 우수할 뿐만 아니라, 융합연구에 있어서도 선도적인 연구를 수행해 오고 있다. 이러한 연구수월성과 다수의 기술사업화 전문가로 구성된 탄탄한 기술사업화 조직을 바탕으로 매년 평균 30억원 수준의 기술이전을 달성하고 있다. 또한, 두 개의 기술지주회사 운영을 통하여 2023년 6월말 현재 60개의 자회사를 설립하여 성공적으로 육성하고 있는데, 자회사의 50% 이상이 실험실 창업 기업으로 실험실의 원천기술을 발굴하여 창업을 유도하고 육성하는 노하

우가 축적되어 있다. 특히, 2021년과 2022년 두 해 연속으로 기술지주회사 자회사 신규고용창출 실적 1위를 달성했으며, 자회사의 누적 투자 유지 금액이 1300억원이 넘는다. 이와 같이 연구수월성과 우수한 기술사업화 역량을 보유한 우리 대학이 '캠퍼스 혁신 파크' 사업을 통하여 디지털·바이오 융복합 기술 중심의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게 된다면, 말뚝시의 사례에서와 같이 지역 경제에 크게 기여하는 성공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수한 교통환경 및 정주여건과 더불어 이러한 성공 가능성을 인정받아 올해 '캠퍼스 혁신 파크' 사업의 도전에서 수도권에서는 우리 아주대가 유일하게 서류 심사를 통과하였으나, 결국 지역 균형 발전의 논리의 벽을 넘지 못하여 최종적으로 지역 대학 두 곳(부경대, 단국대 천안)이 선정되는 안타까운 결과를 얻었다. 올해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더 치밀하게 준비하여 내년에 다시 도전할 계획이며, 반드시 사업에 선정되기 위하여 대학 본부와 산학협력단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올해 '캠퍼스 혁신 파크' 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일부 대학 구성원들의 우려도 확인 한 바가 있다. 특히, 사업 대상 부지는 두 면의 축구장, 체육관, 가온마당을 포함하는데, 축구장이 없어지는 것에 대한 구성원들의 우려가 컸다. 이러한 우려를 고려하여 우리 대학의 산업단지 구성 계획을 수립하였다. 1단계 6년 동안에는 축구장 1면과 체육관 부지에 산업단지를 조성하며, 2단계 3년동안 나머지 축구장 1면과 가온마당으로 산업단지를 확장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2면의 축구장이 모두 일시에 산업단지로 활용되는 것이 아니며, 2단계 사업 기간 전에 축구장을 현재의 테니스 코드 주변의 장소로 이전 설치하는 계획도 함께 수립되어 있다. 또한, 체육관은 고유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산학협력 활동에 활용이 가능하게 하는 방식으로 리모델링하여 존치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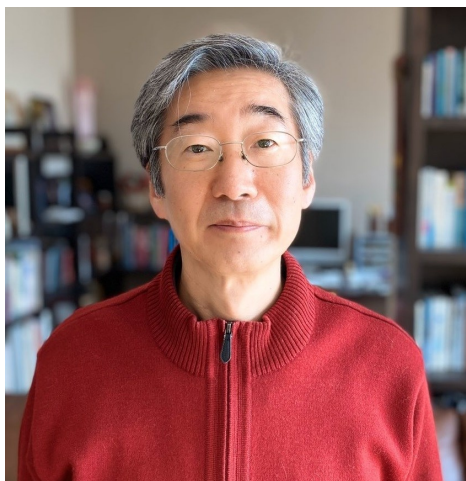
'캠퍼스 혁신 파크' 사업의 요구 사항을 감안하여 현재의 대상부지를 선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교문을 들어서서 처음 맞이하는 대학의 얼굴을 산업단지로 바꿈으로써 시대가 요구하는 대학의 사명인 산학협력을 선도하는 대학으로 도약하겠다는 우리 대학의 의지를 표명하고자 하는 의도도 있었다. 또한, 현재의 위치에 '캠퍼스 혁신 파크'를 조성하는 것은 수원시의 지원으로 주변 도로를 정비하여 '울타리 없는 대학'으로서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산업단지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의도도 있다.

'캠퍼스 혁신 파크' 사업의 선정은 우리 대학의 새로운 50년을 준비하는 매우 의미있는 사업이 될 것이며, 대학 본부와 산학협력단에서 심혈을 기울여 준비하고 있는 만큼 대학 구성원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기대한다.

소통과
담론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 추진에 대한 소견

건축학과 김 장 훈



사실 교수회로부터 원고청탁을 받기 전까지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에 대하여 진지하게 생각해본 적이 없었다. "대학 본부에서 알아서 잘하시겠거니" 하는 마음이었다. 그러다 기왕에 쓰기로 한 글이니, 우선 산학협력단/기획처에서 2023년 2월 15일 자로 작성한 '2023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 추진 보고' (이후 '사업추진보고서')를 살펴보았다. 사업의 요지는 창업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국비 20%, 지자체 20%, LH 투자 60%로 재원을 마련하여 대학 캠퍼스 내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이다. 대학의 미래를 위하여 대운동장을 훼손하면서까지 사업을 유치하려는 간절함을 읽을 수 있었다. 하

지만 아쉽게도 올해는 사업자로 선정되지 못하였다고 하는데, 다음 기회에 다시 도전할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 그래서 사업계획을 잘 준비해서 사업을 성공적으로 유치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또한 유치 후 계획대로 학교발전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막상 사업이 시작되었을 때 맞닥뜨릴 수도 있는 상황을 미리 생각해보았다.

사업추진보고서에 따르면 유치하고자 하는 바이오헬스, 펩리스반도체, IT 분야 200개 기업에 할당된 전체 공간은 주차장과 전기·기계실을 제외하고서 15,000㎡이다. 이는 1개 기업당 평균 75㎡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그리고 여기서 근무할 새로운 인력 1,500명을 고려하면 1인당 10㎡로 건축설계 시 통상적으로 참고하는 사무소 연면적당 적정면적 8~11㎡/인 범주에 속하여 건축계획 상 큰 무리는 없어 보인다. 하지만 이 수치에는 복도, 계단실, 엘리베이터실, 화장실, 탕비실 (그리고 대회의실) 등 공용면적이 포함된 것이니 실제 업무상 활용 가능한 면적은 이보다 훨씬 줄어든 것이다. 또한 이 수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정하는 사무업무를 수행하는 전형적인 사무소 건물의 계획을 위한 것이니만큼 바이오헬스, 펩리스반도체, IT 등 특화된 분야의 업무를 위한 1인당 적정면적이 과연 얼마일지 실사를 통한 확인이 필요하다. 그래야 새로이 창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일자리 수치(현재 1,500명분)도 신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현재 가정한 1개 기업당 평균 직원 수 7~8명의 적정성 여부와도 깊은 관련이 있고, 유치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의 수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임대 수입을 결정하는 요인이 될 것이므로 그 중요도가 절대 낮지 않다.

다음은 임대 수입에 관한 것이다. 사업추진보고서에서 예상한 임대 수입은 연 12.5~17.5억 원으로 이는 기업당 평균 연 625~875만 원, 월 52~73만 원의 임대료에 해당한다. 기업활동에 대한 임대료로서는 부담이 적어 기업을 유치하기에 매우 매력적인 조건일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이런 부담 없는 조건임에도 과연 200개의 기업이 꼭 들어차기까지 시일이 얼마나 걸릴지, 공실률은 얼마나 될지, 증

가할지 감소할지 그 추세를 예측하기도 어렵거니와 공실률에 따라 일희일비하며 대책을 마련하는 일은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 시설임대 운영 실세인 LH의 제시안에 따르면 기업에 할당된 면적 15,000㎡의 13%에 해당하는 2,000㎡는 시세의 약 20%의 임대료로 스타트업에 배정되고, 20%에 해당하는 3,000㎡는 시세의 약 60%의 임대료로 BI(Business Incubator, 집중육성지원 대상 기업) 및 연구소에 배정되고, 67%에 해당하는 10,000㎡는 시세의 약 80%의 임대료로 Post BI 등에 배정될 예정이다. 즉 임대 수입의 대부분이 집중육성지원 기간이 지나 막 자립을 시작하는 기업으로부터 나오는 것으로 계획되었다. 2023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 조건은 LH가 30년간 산학연 혁신허브를 임대·운영하여 투자금을 회수하는 것으로 되어있지만, 사업추진보고서에는 16~22년에 걸쳐 조기 회수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이 지점에서 드는 의문이 있다. 과연 새로이 조성될 캠퍼스 혁신파크가 시세의 80%에 달하는 임대료를 기꺼이 내며 입주할 Post BI 130여 개 업체를 유치할 정도로 경쟁력이 있을 것인가? 스타트업으로 입주하였다가 성장하여 잘 나가게 된 Post BI라면 우리 캠퍼스와는 불과 지하철로 20분 떨어진 거리에 막강한 인프라를 갖춘 판교 테크노밸리로 동지를 옮겨 틀려고 할 것이라는 불안감을 떨쳐내기 어렵다. 아울러 우리 캠퍼스 주변의 광고지구를 비롯하여 영통지구와 흥덕지구 등에는 Post BI 기업들이 입주할만한 번듯한 사무소 건물이 널려있는 점도 이런 불안감을 더하게 한다. 만일 유치한 Post BI 기업의 수가 충분치 않아 임대 수입이 예상만큼 들어오지 못한다면, 그 결과 LH가 30년이 지나도록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도 미리 생각하고 대책을 마련해 두어야 할 것이다. 물론 캠퍼스 혁신파크가 인기리에 입주기업을 유치하고, 캠퍼스 내에서 자생적으로 스타트업이 생겨나고, 스타트업이 BI로, BI가 Post BI로 성장하는 선순환이 만들어지고, 입소문이 퍼지면서 입주를 기다리는 기업이 줄을 잇고, 임대료가 치솟아 임대 수입이 예상을 훨씬 뛰어넘게 되어 LH 투자금이 10년 만에 조기 회수되고, 이후 임대 수입은 고스란히 대학의 잉여 수입이 되고, 혁신파크는 영구히 대학의 소유가 되는 가장 바람직한 시나리오도 생각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미래의 임대 수입보다 현실적으로 더 민감한 사안일 수 있을 텐데, 캠퍼스 혁신파크에 자리를 내줄 대운동장의 운명과 늘어날 교통량에 관한 것이다. 대운동장을 이대로 캠퍼스에서 사라지도록 할 것인지 아니면 대체 터를 발굴하여 그리로 옮겨 새로이 조성할 것인지 대학 구성원의 지혜가 모여야 할 것이다. 또한 계획대로 새로운 일자리 1,500개가 창출된다면 출퇴근 시간대에 병원과 캠퍼스 안팎에 그만큼 교통량이 증가할 텐데 이에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지금도 퇴근 시간이면 학교 정문을 통하여 나가거나 병원부터 정문 앞 월드컵로를 지나는 자동차의 행렬이 길게 늘어선 모습을 종종 볼 수 있다.

대개 큰일을 앞두고 이런 말을 하면 ‘초(醋) 치는 소리’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건축물의 뼈대 설계는 이런 ‘초 치는’ 생각으로부터 시작한다. 즉 최악의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건물의 뼈대가 무너지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설계한다. 다시 말하면 그런 최악의 상황에서도 건물 뼈대가 무너지지 않도록, 무너지더라도 설계자의 의도에 따른 무너짐은 허용함으로써 건물 전체의 붕괴로는 이어지지 않도록 하여 거주자의 생명을 보호하면서 경제성도 살리는 방향으로 건물 뼈대를 설계한다. 그래야 불확실성이 가득한 여건에서 건물 뼈대가 살아남을 가능성이 커진다. 이런 설계철학을 통하여 ‘2023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 추진 보고’를 살펴보았다.

교수들의
건강칼럼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의과대학 치과학교실 송 승 일



중국의 고전 <서경> <홍범편>에 오복이라는 표현이 나온다. 오복이란 인생에서 바람직하게 여겨지는 다섯가지 복을 의미하는데 오래 사는 것, 부유하게 사

는 것, 건강하게 사는 것, 덕을 베푸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깨끗하게 죽는 것을 포함한다. 반면에 민간에 내려오는 오복은 이것에 비해 훨씬 소박한데 그 중에는 좋은 치아가 포함되어 있다. 아마도 음식을 잘 먹는 것이 가장 중요한 행복의 조건 중에 하나로 여겨졌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이처럼 치아는 건강을 유지하는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인지 사람의 치아는 유치 20개가 다 빠져도 영구치 28개(사랑니 제외)가 맹출하여 평생 동안 음식을 씹는 기능인 저작을 담당하게 된다. 그런데 유치는 빠지면 영구치가 나오지만 영구치는 한번 빠지면 더 이상 이가 나오지 않아 옛말에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씹는다는 표현이 있었다. 물론 지금이야 인공치아로 불리는 임플란트가 있어 영구치 상실 이후에도 변함없이 음식을 씹는 즐거움을 포기하지 않아도 된다.

치아를 상실했을 때 임플란트가 이전의 치료법인 브릿지나 틀니에 비해 좋은 점은 충분한 저작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이다. 김치도 못 먹는다면 음식을 씹는 즐거움을 잃어버린 환자들이 임플란트

후에 가장 좋아하는 점 역시 마음껏 음식을 씹을 수 있다는 것이다. 임플란트는 치아의 뿌리 역할을 하는 픽스처를 치아를 상실한 치조골 부위에 심어 놓고 약 3개월 정도의 골과의 유합에 필요한 기간을 기다린 후 상부 보철물을 제작해 연결하는 방식으로 치아를 재건해 낸다. 치아로 말하면 뼈 속의 치근에 해당하는 부위와 잇몸 밖으로 노출된 치관의 형태를 모두 가지고 있어 인공치아라고 불리며 건강한 치아와 비슷한 저작력을 발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심미적으로도 자연치와 가장 유사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 물론 이 모든 과정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임플란트를 식립할 치조골이 필요한데, 치아가 상실되면 치조골의 흡수가 진행되므로 옛날과 같이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버틴다는 생각으로 너무 오랜 시간 치아가 상실된 상태를 방치하면 치조골 재건을 위한 골이식이 필요하거나 심한 경우 임플란트 치료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임플란트를 하고 나서 환자들이 가장 불편해 하는 점은 음식물이 많이 낀다는 것이다. 특히 자연치와 임플란트 사이에 음식물이 많이 끼는데 이는 음식을 씹을 때 아주 미세한 움직임을 허용하는 자연치와 달리 전혀 움직임을 허용하지 않는 임플란트의 차이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임플란트 주위에 음식물이 낀 상태를 방치하면 자연치에 생기는 치주염과 같이 임플란트 주위염을 유발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잇몸의 염증과 함께 치조골의 흡수를 불러 일으켜 임플란트를 제거해야 하는 상황까지도 이를 수 있다. 임플란트의 수명을 묻는 환자들에게 필자는 본인의 자연치와 비슷한 수명을

가진다는 대답을 하곤 한다. 신체 나이가 있듯이 치아에도 나이가 있다. 치아가 연령 감정에 이용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70대가 넘어도 젊고 건강한 치아상태를 유지하는 어르신들은 칫솔질이나 치실, 치간 칫솔의 사용과 같은 치아 관리에 신경을 많이 쓰신다. 임플란트 역시 유지 관리에 신경을 써야 오랫동안 잘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했으면 좋겠다. 찜양이나 히밥과 같은 먹방 유튜버들의 영상을 보고 있으면 그들이 정말로 음식을 먹는 것 자체를 즐기는 것을 느낄 수 있다. 백세 시대에 걸맞게 오래도록 행복의 조건인 먹는 즐거움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 치아 건강에 힘써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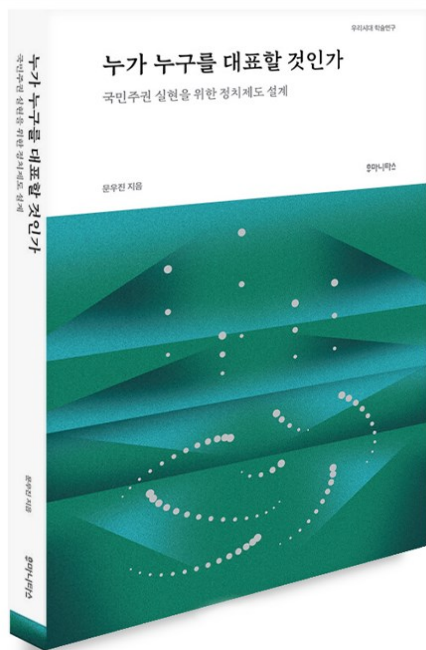


저서
소개란

누가 누구를 대표할 것인가 (국민주권 실현을 위한 정치제도 설계)

저자 문우진,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과

문우진 저 | 후마니타스 | 2021.10.25.



저자는 학생들에게 정치학은 의학과 비슷하다고 말한다. 의학은 사람이 앓는 병의 원인을 진단하고 이를 고치기 위한 처방을 한다. 마찬가지로 정치학은 사회 문제의 원인을 진단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처방을 한다. 의학에서는 약이나 수술을 통해 사람의 병을 고치는 반면, 정치학에서는 정치제도 설계를 통해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 이 책의 목적은 한국 민주주의, 더 나아가 대의민주주의의 문제를 진단하고 국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인 처방책을 제시하는 것이다.

저자는 『한국 민주주의의 작동원리』에서 국회의 대의 기능과 갈등조정 기능의 실패, 정책경쟁의 부재 및 정치양극화와 같은 한국 정치의 문제들이 협애한 정당체제와 단순다수제 위주의 선거제도의 조합 때문에 초래된다고 진단하였다. 저자는 『누가 누구를 대표할 것인가』에서 이러한 병리학적 문제들을 고치기 위한 제도적 처방을 제시하려 하였다.

저자는 한국 민주주의에서 발견되는 문제들은 단지 한국 정치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대리인 문제”와 “정치의 시장거래화”라는 대의민주주의의 구조적인 문제라는 점을 지적한다. 따라서 한국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개혁 방안들은 한국 정치의 고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국지적인 처방보다, 대리인 문제 및 정치의 시장거래화라는 대의민주주의의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적 처방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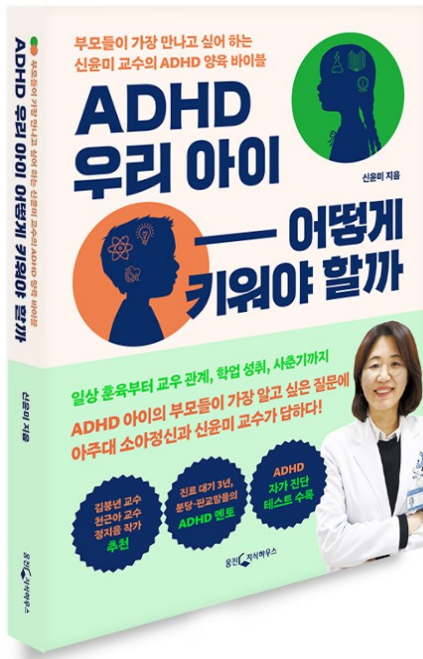
저자가 제시한 제도적 처방은 대의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딜레마에 대한 고민으로부터 출발한다. 대의민주주의는 다수 지배와 소수 보호라는 서로 상충하는 원리를 기반으로 작동한다. 다수가 소수를 지배하면 소수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는 반면, 소수가 다수를 전적으로 견제할 수 있으면 다수의 입장을 효율적으로 반영하기 어려워진다. 그렇다면 다수 지배와 소수 보호라는 상충하는 두 원리 가운데 어떤 원리를 얼마나 더 반영하는 제도가 바람직한가? 이 책은 이 질문과 함께 대의민주주의와 정치제도의 작동 원리에 관한 40개의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가면서, 국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한 정치제도를 모색하려 했다. 이 책은 다음과 같은 주장을 제시했다. 첫째, 대의민주주의는 정치의 시장거래화 및 대리인 문제라는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둘째, 한국의 협애한 정당체제와 소선거구 중심의 선거제도는 한국 민주주의의 고질적인 문제들을 야기한다. 셋째, 시민사회 집단들에 의한 상향식 당내 후보 선발 방식과 부분 개방형 명부 비례대표 선거제도는 정치의 시장거래화와 대리인 문제를 억제한다. 넷째, 이 책이 제안한 선거제도와 다수결 입법 규칙 그리고 대통령제가 조합된 정치체제는 다수의 크기에 따라 다수와 소수의 이익 균형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고 의원들의 정책 경쟁 동기를 촉진한다.

저서
소개란

ADHD 우리 아이 어떻게 키워야 할까

저자 신윤미, 의과대학 정신건강의학과

신윤미 저 | 웅진지식하우스 | 2022.09.22.



텔레비전이나 미디어를 통해 너무 유명해진 ADHD(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는 주의산만, 과다활동, 충동성을 보이는 소아청소년기의 정신과적 문제로 알려져 있지만 최근에는 성인기까지 지속되며 전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다. 2023년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 ADHD 진단자 수가 50% 이상 증가했다고 한다. ADHD는 흔하게 나타나지만, 그만큼 편견과 오해도 많다.

소아정신과 의사로서 20년간 항상 시간에 쫓기면서 진료를 해왔다. 20년의 시간동안 개인적으로 결혼과 출산, 육아를 경험하게 되면서 아이를 키우는 것이 교과서와 다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알게 되었다. 아이를 키우며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일어나지 않는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아이와 관계가 틀어진 적도 있었다. ADHD 자녀를 둔 부모님은 훨씬 더 많은 인생의 장애물을 넘어가야 한다. 한정된 진료 시간으로 인해 제대로 도움을 받지 못하는 부모님들의 답답하고 외로운 모습을 지켜보면서 책을 쓰게 되었다.

책은 자녀가 ADHD 의심 증상을 보일 때 판단할 수 있는 기준, 가족들이 마음을 다스리고 대처하는 방법, 아이들에게 가장 효과적인 훈육법, 개별화된 사회성 기르기 훈련, ADHD 아이들의 조금 다른 공부법, 폭풍 같은 사춘기 아이들과의 대화 현명하게 극복하기, 걱정되는 약물 치료에 대한 궁금증 등 부모님이 진료실에서 못다한 질문에 대한 답이다. 이제까지 치료한 아이들의 이야기와 함께 진료실에서 겪은 경험을 정리하려고 노력했다. 외롭게 고전분투하고 계시는 부모님들이 ADHD 아이와 함께 긴 여정을 걸어가는 데에 큰 도움이 되기를 소망한다.



아주대학교 교수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206 아주대학교 율곡관 263호

전 화: 031)219-2240

팩 스: 031)219-1608

전자우편: ajoufaculty@ajou.ac.kr

홈페이지: <http://prof.ajou.ac.kr/prof/>

소식

교수회 소식

1. 교수회 제 129차 월례 대의원회 개최

6월 22일 목요일 오후 12시 교직원식당 오크룸에서 129차 월례 대의원회가 개최되었다. 대의원 총 인원 26명중 11명이 참석, 8명이 위임하여 성원되었다.

이번 대의원회에서는 △분과위원회 활동 △의장단 내 책임시수의 유연활용 △제6호 뉴스레터 발행과 관련한 보고를 비롯하여 △학장 선출 방식 △교수업적급 △교육부 모집단위 광역화 등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2. 7월 확대운영위원회 개최

7월 3일 월요일 오전 10시 율곡관 263호 교수회 사무실에서 7월 확대운영위원회가 개최되었다. 이재호 의장, 오승한 복지위원장, 박은덕 정책연구위원장, 이문구 학술위원장 및 호정화 총무가 참석하였다.

이번 확대운영위원회에서는 각 분과위원회(복지위원회, 정책위원회, 학술연구위원회)의 역할분담 사안의 명확화를 비롯하여 분과위원회별 진행중인 활동 현안에 대해 공유하고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다.



편집위원회: 책임편집 박대찬

김홍표, 박대찬, 박영준, 박재연, 예영민, 오동석,
이규인, 이홍재, 정태선, 최영화, 호정화